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9.17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유럽의회, EU 예산 집행 규칙 이견으로 호라이즌 유럽 표결 연기(9.10)
 - 성과체계규정 합의 지연으로 호라이즌 유럽·ECF 등 주요 프로그램 심사에 차질이 생겨, 본회의 표결이 10월에서 11월로 연기됨
 - 표결 지연의 핵심 원인은 집행위가 2025년 7월 차기 EU 다년도재정계획(MFF)과 함께 제안한 성과체계규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임
 - 성과체계규정은 정책목표와 관련해 EU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다 일관되게 추적·평가하기 위한 공통적인 예산 집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EU, 공공조달 개혁으로 R&D 투자 확대 추진(9.10)
 - 집행위가 유럽혁신법(European Innovation Act)과 공공조달법(Public Procurement Act) 제안을 발표함
 - 9월 9일 발표된 혁신법은 공공 R&D 조달 확대와 지식재산권(IP) 기반 자금조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과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목표로 함
 - 혁신법과 함께 발표된 공공조달법은 R&D 조달 외 EU 공공조달 체계를 개편해 기존 3개 지침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고 EU 차원의 공공조달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- EU 회원국 3분의 2, AI 기가팩토리 유치 경쟁 참여(9.10)
 - AI 기가팩토리는 민간 컨소시엄이 건설·운영하고 EU·회원국이 컴퓨팅 자원 구매를 약정해 투자를 유도하는 산업계 주도 방식으로 추진됨
 - EU와 회원국은 최대 100억 유로의 구매 약정을 통해 최소 200억 유로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임
 - 현재 18개 회원국이 기가팩토리 유치에 관심을 표명했고 최종 선정 사업에는 회원국 약정액에 상응하는 EU 지원이 추가될 예정임
- (기타) ▲EU 연구비 간소화 추진에도 인건비 산정 부담 여전(9.15) ▲AI·머신러닝, MSCA 최대 지원 분야로 부상(9.8) ▲EU, 차기 FP10 ‘신규 연구위원회’ 설치 놓고 이견 지속(9.14)